

신앙과 학문

1. 성경 속의 눈(보는 능력을 주신 이유)

: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역시 보는 능력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만약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었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위험을 눈을 통해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눈은 보통 6~7세가 되면 시력이 완성되며, 만 20세 정도면 안구의 성장도 멈춰지게 되어 시력 또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발달로 눈 사용 증가는 성인의 시기에도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눈은 해부학적으로 신체에서 가장 바깥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는 뼈들로 그리고 살들로부터 보호 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눈은 얇은 눈꺼풀에 의해 빛을 가리는 정도로만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균과 박테리아에 쉽게 접촉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야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게 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환경오염으로 많은 안질환이 야기 되고 있으며, 미디어의 발달은 눈의 사용을 증가시켜 시력을 떨어 뜨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균수명의 증가는 눈의 사용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의 사용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눈의 활용 능력은 우리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두 개의 눈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안광학적으로 두 눈으로 인해

입체감과 원근감 더 잘 느끼게 해 주며, 넓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옛말에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처럼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눈을 하나를 잃었을 때 다른 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눈을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안경광학과 교수로서 생각합니다.

2. 성경 속의 눈(육적인 눈 / 안질환)

： 성경 속에서 바울의 가시.....반복각막진무름(미란) 안질환

1) 사울의 회개(사도행전 9장)

： 사울 눈을 다치다

-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3절)

-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8절)

-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9절)

： 사울은 주님과 첫 만남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에서 사울은 이때 너무나 밝은 빛으로 인해 눈을 다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바울의 가시(고린도 후서 12장)

(1)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였을까?

-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7절)

-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8절)

-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10절)

：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것은 육체의 질병 특히 안질환으로 해석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바울의 가시는 아마도 안질환일 것이라는 추측합니다.

(2) 성경 속에서 바울의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 무엇일까?

： 바울이 사울 때 주님과 첫 만남에서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이 잠시 멀었고 이때 각막을 다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때에 이러한 증상은 더욱 심하게 발현되어 주님께 세 번이 눈의 가시로부터 자유롭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제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속에서 앞으로의 나의 삶에 관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완전한 사람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관찰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성취와 성공적인 업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3) 바울의 안질환(반복각막진무름(미란))



반복각막진무름(미란)

- (1) 이 질병의 원인 극심한 빛 노출로 인한 눈부심으로 말미암아 환자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사울이 주님과 첫 만남)
 - (2) 이 질병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그 이유는 세포가 소실될 경우 예민한 각막 신경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바울의 가시)
 - (3) 재발성 각막 미란은 각막의 상피 세포의 가장 바깥층이 기저막(보우만막)에 달라붙지 못하는 것이 특징인 안질환입니다.
- : 성경 속 바울의 가시는 현대의 안과학적으로 유추해 볼 때 반복각막진무름(미란)으로 추측됩니다.

3. 성경 속의 눈(영적인 눈 / 믿음과 복음)

: 성경속의 소경과 도마의 영적인 눈

1)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요한복음 9장)

-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1절)
-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2절)
-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3절)
- (4)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6절)
- (5)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7절)

우리의 질병과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속에서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정말 볼 수 있을 거라는 온전한 믿음 하나로 소경

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영적인 눈을 통해 육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2) 도마의 믿음

소경은 보지 않고 오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도마는 영적인 눈보다 육적인 눈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도마의 믿음(요한복음 20장)

- (1)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 (2)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25절)
- (3)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27절)
- (4)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28절)
- (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29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장 18절)

: 영적인 눈은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을 더 강조하시고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 신앙과 학문

: 성경속의 안경광학과와 안경사

/ 하나님은 왜 안경광학과와 안경사의 직업을 만드셨을까??

1) 신앙과 학문의 정의

신앙과 학문은 자신의 영성을 자신의 학업과 가르치는 일에 통합시켜야 하고, 교과목의 가르침에 기독교 세계관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적 조망은 어떤 특정 학과의 영역에 제한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방향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완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신앙과 학문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2) 안경광학과와 안경사

안경의 원리는 11세기 아라비아 학자 알하젠이 최초로 볼록렌즈의 확대이론을 연구 하였습니다

니다. 영국의 로젤 베이콘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으로 옮겨 볼록렌즈의 확대원리를 입증하였고, 독서 시 사용하여 그 당시 매우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빠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제의했다가 악마에 씌운 사람으로 오인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안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과 그 시기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문헌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로는 13세기 후반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사원 비문에 “여기 플로렌스에 살았던 안경 발명자 알마티 잠들다. 신이여 그의 죄를 용서 하소서”라고 새겨져 있어 이 시기가 안경의 최초 출현시기이며 장소로 유력합니다. 1623년경 스페인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안경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비정시(근시, 원시, 난시)인 사람들은 더욱 많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두 눈을 주셨을 때는 정확한 굴절력을 갖는 정시의 눈을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된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은 비정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라면 안경광학의 신앙과 학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눈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우리 눈의 잘못된 사용으로 비정시가 된 눈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보게 하기 위해 안경광학의 학문을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경사는 하나님이 주신 눈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소명과 사명을 가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독교 대학 교수로 나의 역할과 삶

: 봉사, 연구, 수업, 삶

저의 교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안경광학과 교수의 꿈으로 꾸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수임용 첫해 교수가 된 이후 목표의식을 잃은 저는 매우 힘들고 방황하였습니다. 그 때 나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에 저를 부른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천안지역 유일한 안경광학과이고 백석대학교는 이웃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하는 교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기독교 대학 교수의 역할(봉사)

: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장 10절)

임용 첫해부터 학생들과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장 10절)하라는 성경말씀을 가지고 지역의 아동센터 및 지역 어르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는 시력검사와 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돋보기 처방과 눈 건강관리에 대해 알려주는 봉사를 주로 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과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은 또 다른 보람으로 저에게 느껴졌고 이는 제가 계속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시 복지재단과 협조하여 지역의 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소외계층의 아동들에

개 개인 맞춤 안경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꿈을 물어보기도 하여 꿈을 갖게 하고 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며 십자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동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고 단순 십자가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는 아동들도 있겠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젠가는 찾아가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를 통해 작은 복음 전달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공 학생들과 지속적인 시력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 자신이 앞으로 안보건의료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봉사를 통해 알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실천이 많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안경처방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큰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 한명 한명이 자신의 받은 좋은 느낌과 이웃사랑 실천의 경험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기독교 대학 교수의 역할(연구)

: 소외계층에 관한 연구 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관심은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
- 저소득층 분류에 따른 학동기 아동의 굴절력에 관한 연구
: (한국안광학회 2013 한국안광학회지 Vol.18 No.4)
 - 양육형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착용실태 연구
: (한국안광학회 2014 한국안광학회지 Vol.19 No.2)
 - 시각 장애인의 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 (대한시과학회 2017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7 No.06)
 - 백내장 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한국안광학회 2017 한국안광학회지 Vol.22 No.1)

- 시각장애인의 취업률 현황에 대한 연구
: (대한시과학회 2018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8 No.06)
 - 시각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연구
: (대한시과학회 2018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8 No.06)
 -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한국안광학회 2018 한국안광학회지 Vol.23 No.3)
 - 시각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 (한국안광학회 2019 한국안광학회지 Vol.24 No.1)
-

3) 기독교 대학 교수의 역할(수업)

: PBL수업을 통한 선한 영향력 전달

안경광학1,2라는 과목은 안경광학과에서 시력측정과 안경을 제조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는 중심 과목이며, 국가고시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과목입니다. 안경광학과를 나와서 국가고시 면허증이 없다면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경광학1,2의 과목에 최신교수법인 PBL을 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창의적인 전공 수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 도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와 교육 목표는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 건강과 시 기능보호를 위해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우수한 안경사 육성을 목표로 한다.”이지만 실질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과목도 이를 뒷받침할 과목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경광학1,2는 안경광학과와 중심이 되는 과목으로 안보건 의료인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 인성교육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안경광학1은 “눈 건강 정보 전달 프로젝트”와 안경광학2는 “소외계층 기부프로젝트”의 PBL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경광학1,2의 PBL 수업을 통해 미래 안경사 및 검안사가 될 우리 학생들이 미리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험을 하게하고 졸업 후 이러한 경험이 우리학교의 설비취지인 “난 사람 보다는 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안경사 및 검안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안경광학1,2(PBL)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안경광학1(PBL) : 눈 건강 정보 전달 프로젝트

안경광학1(PBL)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눈에 대한 내용과 눈 건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특히 눈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상식에 대한 지식 등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안경광학2(PBL) : 소외계층 기부프로젝트

미래 보건인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 발달을 위한 취지로 기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설립 취지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수업으로 우리 주위에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모금활동을 통해 기부로 소외계층을 직접 도와주는 작은 선행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헌 안경테 수거 후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 시각장애인 점자책 지원 프로젝트,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 극복 마스크 지원 프로젝트, 성폭력 아동 나영이 지원 프로젝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프로젝트, 소외계층 아동 안경지원 프로젝트 등 많은 분야에 소외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난사람 보다는 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사회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안경사 및 검안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기독교 대학의 교수의 역할(삶)

: 나의 신앙과 학문의 삶

신앙과 학문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사는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분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주셨지만 지금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된 사용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신앙과 학문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생각합니다.

인간에 의해 훼손된 것을 완벽했던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이 신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은 온전한 정시의 눈 이였지만 우리의 잘못 된 사용으로 비정시로 되었고 이러한 비정시를 정시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안경광학의 학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인을 정상의 눈으로 만드셨고 안경사인 저는 안경으로 비정시를 정시의 눈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주신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저의 신앙과 학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장 10절)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제에게 신앙과 학문을 실천하는 삶이란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시력 약자 자들에게 안경으로 눈(육적인 눈)을 회복시키고 작은 복음을 통해 마음 눈(영적인 눈)을 회복시키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6. 신앙과 학문3 계획

: 기독교 관점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연구 : 각막기증 중심

1)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무는 예수님, 바울, 야고보 등에 의해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3-48),

-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9-10).

-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야고보서 2:8).

-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8).

2) 이웃사랑의 실천(장기기증)

장기기증은 우리의 신체에 있는 장기를 기꺼이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이자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타적 희생의 가장 극단을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스스로의 몸을 포기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창세기 3:19).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체는 언젠가는 흠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적인 삶을 살기 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기독교 세계관(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4-5)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인 세계관 삶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 역사의 의미,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도덕의 기초,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등 6가지 기독교 세계관의 설문 항목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각막 기증에 대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함께 비교 연구할 계획입니다. 설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신앙과 학문3 설문내용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연구 : 각막기증 중심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남 ☐ ②여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3.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기타 ☐ ⑤ 무교
4. 귀하의 직계 가족 중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을 앓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5. 귀하는 헌혈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6. 평소 최근 3년 동안 봉사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2번 ☐ ② 3~4번 ☐ ③ 5~6번 ☐ ④ 7~8번 ☐ ⑤ 9번 이상 ☐ ⑥ 없다.

기독교 세계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의 시작과 의미					
1. 태초 전 하나님께서 이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계셨다(하나님의 자존성)					
인간의 본질					
2. 하나님께서 인간은 흠으로 만드셨다(인간의 기원)					
인간 역사의 의미					
3. 아담과 하와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아담의 실재성)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4.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천국의 확산)					
도덕의 기초					
5. 이혼 물질주의 동성에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죄의 결과이다(죄의 결과)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6.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예수님의 도우심)					

태도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장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진은 나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장기 를 매매하는 것에 찬성한다.					
3. 나는 장기증자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난의 가족은 내가 뇌사 시 장기증 을 하면 반대할 것이다.					
5. 나는 뇌사 판정 시 오진의 가능성 때문에 뇌사 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식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생후 6개월에서 98세까지의 건강했던 분은 모두 가능하다.(의학지식)		
2. 백내장과 녹내장일 경우도 각막 기증은 가능하다.(의학지식)		
3. 간염, 에이즈, B형, C형 간염, 활동성 패혈증, 백혈병, 임파종, 각종 전염성 질환도 가능하다.(의학지식)		
4. 근시, 원시, 난시, 색맹에 관계없이 기증할 수 있다.(의학지식)		
5. 라식 및 라섹과 같은 각막수술을 하였어도 기증이 가능하다.(의학지식)		